

이낙연 이재명 겨냥 “리더십 영향, 민주주의 면역체계 무너져”

“준비 부족 윤석열 정부, 이대로 가면 최악의 정부” “여야 혁신 시급, 도덕성과 능력으로 신뢰 얻어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주최한 학술포럼에서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간다”며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문제에 가려지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며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부는 정체의 기간이었지만, 이대로 두면 윤석열 정부는 퇴보의 기간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준비와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정을 맡았다”며 “국정비전이나 국가경쟁역량이 보이지 않고 과거를 헤집는 일만 두드러졌고, 생활물가가 폭등해 서민의

들이 휘지만 정부의 대응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 지난 이념에 사로 잡혀 시대의 진행을 역류하며 흥분도 장군 흥상철거 사태를 일으켰고, 이태원 참사, 태풍피해 확대, 잠버리 파행을 못 막은 무위 무능의 정부를 만들었다”며 “그나마 일한다는 검찰은 요란하지만 부실하고 공정성과 능력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선 “미국, 일본과의 관계만 좋아지면 모든 것이 괜찮다는 식”이라며 “그 결과 한미일 정부관계는 편해졌지만 한반도에 냉전시대 같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처구도가 다시 선명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이라는 비현실적 정책과 적대적 태도로 북한과의 대화 여지를 스스로 막아놓았다”며 “지금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한국에서는 일방적 양보가 불만이고, 일본에서는 이 상태가 지속가능할지 불안해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을 향해선 “당을 흔들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여당은 권력의 하부기관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온 탓인데, 지금도 비슷한 행태를 계속한다’며 ‘얼마나 효과를 내지는 불확실하지만 혁신의 노력은 하고 있고,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4월 총선거가 위기의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 공매도 금지 등이 그 신호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끝나면 그 긴장과 갈등의 푸름이 열릴 지도 모른다. 총선은 위기의 매듭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말을 줄이고 많이 듣기를 권한다”며 “대통령의 말은 실없는 농담마저도 정책처럼 받아들여지며 국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대의 정책에서는 가치외교, 이념외교에 집중하기보다 국익외교, 실리외교를 중심에 놓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돌고래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대 정당을 향해선 위성정당 포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다당제를 통한 무당층 포용, 내부 혁신 등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양대정당이 의석 독과점을 위해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병립형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심하게 만들 것”이라며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양대 정당의 혁신은 이미 실패했거나 실패로 가고 있다”며 “정치 양극화의 해악



을 줄이려면 거대정당의 내부혁신이 시급하다. 거대정당들이 능력과 도덕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 전 총리를 포함해 설훈 민주당 의원,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영재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김상배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희면기자

전남 정치권 여·야 4당, 한 목소리로 “국립의대 신설”

여·야 4당 도당위원장 공동 건의문 발표



정부가 18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전남지역 정치권 여·야 4당이 전남의 최대 숙원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전남지역 여·야 4당은 28일 오후 전남도의회에서 전남 의대 신설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협약서에 서명한 뒤 정부에 지역 의대 신설 확정과 정원 배정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

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정의당 박명기 전남도당위원장, 진보당 이상수 전남도당위원장,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견은 전남도의회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하고, 각 당 도당위원장들이 초당적으로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공동협약서에는 전남의 공공의료 확충과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여·야 4당이 조당적

으로 협력하고,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시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각 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4당 도당위원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의료기본권은 지역, 나이, 경제적 사정 등과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민은 그간 기본적인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취약지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지역대 신설을 막연히 지속적 검토로만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전남에 국립의대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는 선명한 명제 앞에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이 작성하고 낭독한 공동건의문은 정부와 여·야 4당 중앙당에 전달한다. 서선욱기자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 실시간 해수 방사능 측정시스템 구동 확인 나서

여수시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실시간 해수 방사능 측정시스템을 구축한 가운데, 여수시의회에서 현장 확인에 나섰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27일 어업지도선 전남202호 내에 설치된 실시간 해수 방사능 측정시스템 구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영규 의장을 비롯해 해양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영평) 위원 9명, 여수수협 김상문 조합장과 여수수산인협회 최광호 회장 등 15명이 현장에 함께 나섰다.

참석자들은 선박 내에서 시 정부 관계자로부터 실시간 해수 방사능 측정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한 해당 시스템으로 어떻게 방사능을 측정하는지 관계자 시연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박영평 위원장은 “실시간 해수 방사능 측정시스템은 해수를 육지로 옮겨 분석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해양에서부터 바로 방사능 감사가 가능한 획기적인 장비”라며 “여수시가 오염수 방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영규 의장은 “시의회는 일본 오염수 방류에 앞서 인근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3 느단 86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망 김정진 (380201-2665522)
 최 후 주 소 : 순천시 이수로 226-1

위 망 김정진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11월 29일

공 고 인 : 박나영, 박정미, 박성철, 박옥영.
 주 소 : 전남 담양군 대덕면 상운길 20-2(운암리)
 한정승인수리일 : 2023년 11월 21일
 공 고 기 간 : 2023. 11. 29 ~ 2024. 1. 29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23 느단 1095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망 김희식 (590803-1655211)
 최 후 주 소 : 나주시 금천면 신가로 7, 102호(우영터위)

위 망 김희식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11월 29일

공 고 인 : 김순옥, 김신우, 김세아.
 주 소 : 광주 남구 서문대로622번길 7, 303동 801호(진월동, 현대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23년 11월 22일
 공 고 기 간 : 2023. 11. 29 ~ 2024. 1. 29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3 느단 10350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사 망 자 : 망 주창길 (700819-1667413)
 최 후 주 소 : 전남 신안군 지도읍 동촌길 34, 205호(읍내리, 대동아파트)

위 망 주창길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11월 29일

공 고 인 : 주한, 주하늘.
 주 소 : 광주 북구 서양로 84, 403호(중흥동)
 한정승인수리일 : 2023년 11월 28일
 공 고 기 간 : 2023. 11. 29 ~ 2024. 1. 29

상속한정승인심판경정공고

망 김용운(521112-1659218)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심판경정(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 광주가정법원 2023즈기3344 심판경정
 공 고 인 : 김태령
 한정승인 심판경정 수리일 : 2023. 11. 27.
 공고기간 : 2023. 11. 29~2023. 01. 29.
 주 소 :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665번길 26, 202동 810호 (소촌동, 서라2차아파트)
 김태령 ☎ 010-4849-2735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直通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